

관람객들 “환불” .. 흥행에 ‘빨간불’

인기 전시관 오전 10시 예약 끝나자 불만 폭발

수학여행·체험학습 참여 학교도 10%에 그쳐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관람객 수가 지난 27일 하루 11만명을 넘어섰지만 애초 이날 목표치였던 15만~2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친데다, 28일 관람객은 다시 4만2000여 명으로 급감하면서 흥행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학생 단체 관람이 저조한 것은 물론 지난 27일에는 300여명이 ‘인기 전시관을 둘러보지 못하게 됐다’며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관람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성년 관람객 300여명이 조직위 사무실로 불려와 환불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예약제를

통해 관람객을 입장시켜 온 아쿠아리움 등 인기있는 8개 전시관의 예약이 이날 오전 10시경 1시간 만에 완료되는 바람에 사실상 전시관을 둘러보지 못하게 된 관람객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관람객들은 조직위 1층 로비와 사무실 등을 점거한 채 책임자의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소동은 끝이 없었다.

이처럼 조직위의 운영과 박람회 전시의 질에 대한 관람객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흥행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조직위 홈페이지에는 박람회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고, 조직위는 과도한 비난의 글을 실시간 삭제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를 모두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

에 박람회를 다녀간 관람객들의 호평을 통해 새로운 수요층이 여수를 찾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못해 관람객 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 초반인 5~6월엔 일반인·학생 등 단체관람객, 그리고 7~8월엔 직장인·가족단위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학생 단체관람객이 적어 초반 흥행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박람회 관람 예정 학교 및 학생 수 파악 결과 자료’(4월 23일 현재)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6.17%인 724개교, 14만 6355명만이 이번 박람회를 찾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현재에도 전남지역 참여 학교 수는 과거와 변동을 없애고 광주지역만 1개교가 추가됐다.

조사 시점이 개막 이전이지만 광주·전남지역 상층으로 미뤄보면, 이 기간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학교

를 포함하더라도 박람회 참여학교는 전국적으로 10%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가 부모·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여행사를 섭외해야 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수개월 전에 미리 계획하기 때문이다.

또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는 서울 43개교, 경기 25개교, 부산 44개교, 대구 22개교, 대전 15개교, 울산 14개교, 제주 6개교만 참가의사를 밝히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믿었던 학교 단체 관람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오후 6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는 야간권을 최근 신설하고, 전기간권을 추가로 판매하고 있지만 박람회 흥행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권과 전기간권은 여수·순천·광양 등지의 관람객들이 즐겨 찾는 것으로 보여 박람회 입소문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상현(41·여수시 봉산동)씨는 “조직위가 무리하게 목표 관람객 수만 높게 잡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찔한 버티컬 댄스

휴일인 28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아쿠아리움관 외벽에 프랑스 버티컬 댄스팀인 르투라몽(Retouramont)이 ‘인간의 몸(in vivo)’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르투라몽은 버티컬댄스계의 선두주자로 프랑스와 유럽 등지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팀이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버스도 택시도 없는 밤 ‘귀가 전쟁’

빅오쇼 관람객들 안내자 없어 낯선 거리 무작정 걸어서 숙소로

“버스도 택시도 없는데 박람회 관람객은 어떻게 숙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지난 27일 밤 11시30분께 박람회장 일대는 숙소로 돌아가려는 관람객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11만여명이 박람회장을 찾은 이날, 빅오쇼 등을 본 뒤 밤 11시까지 주변을 구경하던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이 일대는 대혼잡을 빚었다. 관람객들은 그러나 숙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귀가전쟁을 치러야 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밤 11시에 끊기면서, 교통편을 구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숙소가 있는 여수 도심권까지 2시간 가량 길게 줄을 지어 낯선 거리를 걸어야

했다.

대전에서 온 김모(여·70)씨는 “안 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 이 정도만 보고 무작정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호텔 1000여실, 콘도 200여실, 모텔 5600여실과 펜션, 야영장, 휴양림, 대학 기숙사 등 대체숙박시설 2400실 등 총 9000여실이 완전히 꽉 찬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박람회장 폐관 무렵,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시내버스를 놓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또 이 시간에는 박람회장으로 가려는 승객이 없어 택시들이 모두 여수 도심으로만 몰려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순환버

스가 운영됐지만 경로가 한정적이어서 여수에서 숙박하는 관람객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동안 모든 교통 대책이 관람객을 박람회장으로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숙소로 돌아가려는 관람객을 위한 야간 교통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대중교통 운영 정보를 숙지한 뒤 여수지역 관광 계획을 세워야 불편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박준영 지사 파라과이 대통령 면담 ‘경제외교’



박준영 전남지사(왼쪽)가 28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파라과이 국가의 날’ 행사에서 페르난도 루고 멘데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농업분야 교류 협력”

104개 여수엑스포 참가국 홍보 행사인 ‘국가의 날’에 처음으로 해당 국가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파라과이 국가의 날에 페르난도 루고 멘데스 파라과이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부, 농림부, 상공업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주한 파라과이 대사 등 일행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 강동석 조직위원장, 이준희 정부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12일 공식 개장 후 국가의 날에 왕세자나 총리가 아닌 국가원수급(1등급) 인사가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광주전남연합회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등 우리측 2개 기관과 파라과이 농림부, 주한 파라과이 상공회의소 등 상대국 2개 기관은 파라과이 기술연수생 초청,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이어 또다시 경제외교를 펼쳤다. 박 지사는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는 비록 지구의 반 바퀴를 지나 대척점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국제 경제의 새 동력으로 상호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에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한국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라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파라과이와 전남도간의 농업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숯불구이전문점

KOREA PORK



파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한돈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생삼겹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 입니다.

딱! 2분이면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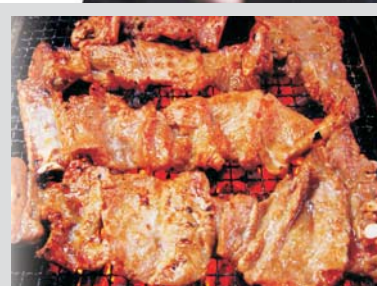
기름기 많은 오리와 삼겹살을 타지 않게 숯불에 구워내는 초 대박 숯불구이 아이템!!
기름은 짜야-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숯불구이의 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취급예류

-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250g
- 생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200g
-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200g
-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200g

점심특선

- 갈비정식 5,000원
- 냉면 4,000원
- 정량판매(1인분) 7,000원
-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읽어보십시오! 한돈으로 성공하실수 있습니다.

- 1.맛있어 우리 고장에서 사육되는 순수 국내산 정품 돼지만 매일 작업하여 취급하므로 타업체와 원자재 비교 불가합니다.
- 2.중요한 본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아이디어 숯불구이 기계는 원적외선이 사방에서 방출되어 2분만에 순간적으로 구워지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고 인건비 절감효과등이 탁월합니다.
- 3.성공적인 타입종으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비용중 가장 큰 금액인 간판교체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므로 쉽게 업종전환을 하실 수 있으며 업주께서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하실 경우 최소, 최저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4.안정적인 본사인 (주)사랑방유통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인점 관리와 물류를 책임집니다.

숯불구이전문점
나는 한돈이다

| | | |
|--------|--------------|---------------------|
| 오치본점 | 062-264-5343 | 5월 오픈 성업중! |
| 체인점 문의 | 062-265-8900 | 본부장직통 010-7118-5514 |

빛의만평

- 김종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한답니까?!